

## 타르굼 호세아 1장의 번역 기법

김선종\*

### 1. 서론

타르굼은 히브리 성경에 대한 아람어 번역본을 일컫는다. 주전 8세기 앗시리아 제국이 구약 주변 세계의 패권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아람어를 국제 공용어로 채택한 이후 그 언어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sup>1)</sup>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성경 히브리어를 더 이상 일상 언어로 사용하지 않을 때, 고문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히브리 성경을 당시 청중의 언어인 아람어로 번역하는 일은, 자신들의 경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었다.<sup>2)</sup> 이처럼 아람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를 위해 타르굼이 탄생했다면, 이를 히브리 원문에 대한 번역본의 지위로만 여길 수 있는 오늘날 독자들에게 타르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타르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 중,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번역’으로서 타르굼은 오늘날 성경 번역자들에게 좋은 번역의 본을 제공한다. 현대어 성경 번역 원칙이 문학 및 언어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여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지만,<sup>3)</sup> 그 이전, 그리스어, 아람어, 시리아어 등 고대 번역자들의 번역 기술을 되새겨보는 일은 전문 번역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다. 둘째로, 히브리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타르굼<sup>4)</sup>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좋은 방식을 보여준다. 우리가 다룰 본문과 관련하여 앞으로 살펴 보겠지만,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성경 내에서 서로 상이한 해석이 주어질 경우, 타르굼 번역자는 어떻게 본문을 읽고 이해했는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예에서처럼 타르굼이 히브리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통로라면, 마지막으로 타르굼 아람어는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기저 언어로서의

\* 스트라스부르대학교 개신교신학부 박사, 구약학.

1) 참고, S. A. Kaufman, “Languages(Aramaic)”, ABD 4, 173-175.

2)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타르굼의 의미, 종류, 필요성, 시대적 배경 등은 본 논문이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우리말 연구를 위해서는 참조, 배철현, “타르굼 아람어 성서 번역의 특징”, 『성경원문연구』 18 (2006), 24-42. 비교적 최근 C. Tassin, “Targum”, *Supplément au Dictionnaire de la Bible* 13, 2-343은 이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3) 전반적인 현대의 성경 번역 이론을 위해서는,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두란노, 1996) 참조.

4) ‘타르굼’은 ‘번역’뿐 아니라 ‘해석’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참조, Ph. S. Alexander, “Targum, Targumim”, ABD 6, 320-321.

중요성을 갖는다. 신약 연구가 그리 단순하지 않은 많은 까닭 중 하나는 문자로 기록된 언어(그리스어)가 곧 당시에 입말로 사용된 구두 언어(아람어 혹은 히브리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어 구문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든 경우, 일차적으로 그 언어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아람어 혹은 시리아어로 다시 번역하여 해석을 시도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sup>5)</sup>

이러한 타르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성은 이 글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타르굼 호세아 1장에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 본문에 나타나는 번역 기법은 타르굼 번역 기술의 전형적인 예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사례 본문으로 선택한 타르굼 호세아 1장을 읽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성서주석으로서의 타르굼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마소라 본문에 대한 한글 번역 성경인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구절과 견주어 살펴봄으로써, 타르굼 번역자의 번역 기법 및 그 번역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2. 우리말로 옮긴 타르굼 호세아 1장

우리는 본 논문에서 타르굼 번역자가 히브리 본문을 옮기기 위해 선택한 용어들을 가능한 한 가까운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직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생גיע 되는, 우리말 어투가 어색한 부분이나 히브리 본문과 다른 아람어 표현은 ‘번역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반면, 히브리 본문을 삭제하고 새롭게 첨가함으로써 완전히 변형된 타르굼의 표현에 대해서는 ‘타르굼의 번역 기법’ 난에서 다루도록 하겠다.<sup>6)</sup>

<sup>1</sup>유다 <sup>1</sup>집의 왕들,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날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날들에, 브에리의 아들 <sup>2</sup>호세아에게 임한 <sup>3</sup>야훼 앞으로부터의 예언의 말씀. <sup>4</sup> <sup>2</sup>호세아에게 임한 <sup>5</sup>야훼

5) 이에 대한 예는 아래 4.1.1.에서 살펴본다.

6) 마벨로니아 모음부호 방식에 따라 기록된 호세아서의 타르굼 아람어 본문을 위해서는 A. Sperber, *The Bible in Aramaic, Vol. II: The former Prophets according to Targum Jonathan* (Leiden: Brill, 1959), 383 이하를, 이에 대한 현대어 번역을 위해서는 A. Wünsche, *Der Prophet Hosea übersetzt und erklärt mit Benutzung der Targumim, der jüdischen Ausleger Rachi, Aben Ezra und David Kimchi* (Leipzig: Weigel, 1868), 1-33; K. J. Cathcart and R. P. Gordon, *The Targum of the Minor Prophets: Translated, with a Critical Introduction, Apparatus, and Notes, The Aramaic Bible 14* (Edinburgh: T. & T. Clark Ltd., 1989), 29-30을 참고할 수 있다.

말씀의 시작. 그리고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sup>ㄹ</sup>우상숭배하는 도시의 주민들에 대하여 <sup>ㅁ</sup>예언을 예언하라<sup>ㅂ</sup>.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민들이 야훼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sup>3</sup>그리고 그는 갔다. 그리고 그들에 관하여 예언했다. “만일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 잎들이 떨어지듯이 그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행했다. <sup>4</sup>그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이름을 <sup>ㄴ</sup>‘므바드라야’로 불러라. 왜냐하면 그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예후가 이즈르알 골짜기에서 그들을 죽여 쏜 <sup>ㄹ</sup>우상숭배자들의 피를 내가 여전히 잠시 동안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벤엘의 송아지들을 좇아 <sup>ㄹ</sup>우상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나는 예후의 집 위에 있는 무고한 피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왕정을 폐할 것이다. <sup>5</sup>그리고 그 때 이즈르알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행하는 자들의 힘을 꺾을 것이다.” <sup>6</sup>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라 르히민’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더 이상 자비를 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sup>7</sup>그리고 나는 유다 집에 대하여 자비를 내릴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sup>^</sup>말씀(메트라)으로 그들을 구할 것이다. 그들은 활로도 칼로도 전쟁 행위로도 말로도 마병들에 의해서도 <sup>°</sup>구해지지 못할 것이다.” <sup>8</sup>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주민들은 그들의 행위들로 인하여 궁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sup>9</sup>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들의 이름을 ‘라 암미’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 나의 <sup>^</sup>말씀(메트라)이 너희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번역에 대한 해설

ㄱ. 집: ‘집’은 히브리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아람어 <sup>כ</sup>에 해당한다. ‘유다 집’(בית יהודה)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성경의 전·후기 예언서 곳곳에 나타난다(삼하 2:4, 7, 10, 11; 왕상 12:21, 23; 왕하 19:30 등). 번역자는 국가로서의 ‘유다’라는 용어만이 나타날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 그 앞에 ‘집’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수 21:9, 11; 사 1:4, 10 등 300회 이상). 따라서 호세아서가 히브리 본문의 ‘유다’를 ‘유다 집’으로 옮긴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호세아가 유다 왕국을 하나의 혈연 공동체로 특별히 표현한 것이 눈에 띄며, 이는 아마

도 타르굼의 후대 편집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절에서 타르굼은 히브리 본문에 따라 שְׂרָאֵל בְּיָתָא를 그대로 옮기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단락에서 나타난다.

ㄴ-ㄴ. 호세아에게 임한: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호세아에게 임한’의 전치사는 각각 עַם과 כִּי이다(마소라 본문에서는 각각 אֵל과 כִּי). 따라서 사실 히브리어 및 아람어의 표현을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옮기면 2절은 ‘호세아 안에 임한’이 되어야 한다. 이는 예언자의 내부에 강하게 임한 하나님의 파토스를 표현한다.<sup>7)</sup>

ㄷ-ㄷ. 야훼 앞으로부터의 예언의 말씀: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표현은 아람어 표현보다 단순한 ‘야훼의 말씀’(דְבַר יְהוָה)이다. ‘예언’(נְבוּאָה)은 첨가되어 있고, ‘말씀’으로 번역된 타르굼의 단어는 페르시아어 פִּתְנָם(1, 2, 9절)에 해당한다.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דְבַר는 아람어에서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동사 역시 ‘말하다’의 뜻이 아닌, ‘인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sup>8)</sup>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 ‘느부아’(נְבוּאָה)가 포로 이후 문서에 단지 세 번 나타나고 있는 반면(대하 9:29; 15:8; 느 6:12), 타르굼에는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sup>9)</sup> 히브리 성경에서 דְבַר יְהוָה가 전문용어로서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반면(대략 240회), 선포된 예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후대의 번역자는 히브리어의 ‘드바르’와 구별되는 ‘느부아’를 사용한 것이다.<sup>10)</sup> 이와 더불어 페르시아어 פִּתְנָם이 아람어에 흔히 나타나는 것은 당대의 언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오랜 역사 동안 구약 주변 세계의 넓은 지역에서 정치, 외교, 경제 언어로 통용된 아람어는 페르시아어 등 주변 언어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통로 언어의 구실을 하였다.<sup>11)</sup>

우리가 ‘야훼 앞으로부터’로 번역한 것은, 아람어 전치사 ‘קִדְמָא(앞)-מִן(부터)’을 옮기기 위한 것으로, 당시 일반 아람어 문서들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전치사 ‘민-코담(מִן-קִדְמָא)’은 당시 외교 표현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이는 야훼

7) A. J. Heschel, *The Prophets* (New York: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62)의 연구를 요약하면, 예언은 예언자 내부에 응축된 하나님의 파토스가 폭발하여 외부로 나타난 것이다.

8) M. Jastrow,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New York: The Judaica Press, 1996), 278.

9) 히브리 성경의 표현 ‘야훼의 말씀’(דְבַר יְהוָה)은 타르굼에서 기계적으로 ‘야훼 앞으로부터의 예언의 말씀’(מִן-קִדְמָא נְבוּאָה פִּתְנָם)으로 옮겨진다(사 38:4; 램 1:2, 4, 13 등 대략 90여 회).

10) W. M. Schniedewind, *How the Bible Became a Book: The Textualization of Ancient Israe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18-128.

11) M. Eskhult, “The Importance of Loanwords for Dating Biblical Hebrew Texts”, I. Young, ed.,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JSOTS 369 (London;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3), 22-23. 특별히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페르시아어의 영향에 대해서는 참조, 배철현, “에스라기 아람어 본문에 나타난 고대 페르시아어 기저 영향 - 에스라기 4장 7하 반절의 번역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19 (2006), 29-46.

하나님의 절대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sup>13)</sup> 이중의 전치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존재론적 간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비록 다음 구절에서 ‘야훼의 말씀’(דבר יהוה)이 “피트가마 다야훼(פִּיטְגָמָא דַּיֵּהוָה)”<sup>14)</sup>로 옮겨지지만, 앞 구절에 나타난 확장된 표현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ㄷ. 이상숭배하는: 대부분의 현대어 번역본들은 ‘길을 잃다’, ‘방황하다’, ‘떠돌아 다니다’에 해당하는 아람어 동사 ܘܫܒܘ를 ‘이상숭배하다’로 번역한다.<sup>15)</sup> 이는 이 동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음행을 지시하는 단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타르굼 번역자가 고멜이라는 인물을 삭제하는 대신 그의 음행을 ‘그 땅의 주민’ 전체에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번역이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 용어의 일차적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타르굼이 백성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를 통해 히브리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계신 반면(3, 6절), 정치 지도자 및 백성들은 바알에게 돌아갔다(4절). 따라서 타르굼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동사 ܘܫܒܘ는 비단 종교적인 이상숭배를 상징할 뿐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못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다.

ㄹ. 예언을 예언하라: 우리말로 단순히 ‘예언하라’로 옮길 수 있지만, 타르굼의 표현 ܘܢܘܗܐ ܘܝܢܒܝܐ를 드러내기 위해 문자적으로 번역했다(3:1 참조).

ㅁ. 므바드라야: 타르굼은 히브리 본문에서 명령된 이름, ܡܒܕܪܝܐ를 그대로 음역하지 않고, “므바드라야(ܡܒܕܪܝܐ)”, 곧 ‘흩어진 자들’로 옮긴다. 이는 죄로 인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가리키는데, 흥미로운 점은 명사 ܡܒܕܪܝܐ를 파생한 동사, ܒܪܝܐ의 뜻이 히브리어 명사 ܡܒܕܪܝܐ를 파생시킨 동사 ܘܫܒܘ를 비유적으로 해석한 아람어라는 사실이다. ܘܫܒܘ는 ‘씨를 뿌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뿌려져 ‘흩어지는’(ܒܪܝܐ) 씨앗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견되고 있다.

ㅎ. 말씀: 이 단어는 1장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인 פתגם과 구별되는 “메트라(ܡܝܬܪܐ)”에 해당한다(9절 참조). 이 단어는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12) J. Joosten, “L’agir humain devant Dieu”, *RB* 113 (2006), 5-17은 ‘하나님 앞에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표현 ἐνώπιον κυρίου를 아람어 전치사 ܕܡܢܝܢ의 배경에서 읽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13) L. Smolar and M. Aberbach, *Studies in Targum Jonathan to the Prophets* (New York; Baltimore: Ktav; Baltimore Hebrew College, 1983), 130-150.

14) 본 글에 나타나는 아람어 표기는 바벨로니아 모음 부호들을 티베리아 모음 방식으로 옮긴 것이다. 아람어 모음 체계 방식들을 위해서는 참조, F. Rosenthal, 『성경 아람어 문법』, 안영복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21-26.

15) A. Wünsche, *Der Prophet Hosea*, 2; K. J. Cathcart and R. P. Gordon, *The Targum of the Minor Prophets*, 29; E. Bons, “Osée 1,2. Un tour d’horizon de l’interprétation”, *RSR* 73 (1999), 220.

아래 4.1.1.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 구해지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 본문에서 주어진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이다. 타르굼은 하나님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직접 구하신다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행위를 삭제하기 위해, 문장의 주어를 ‘하나님’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고 문장을 수동태 형식으로 바꾼다. 이러한 타르굼 번역자가 신인동형론적 표현을 기피하는 현상은 곧 ‘메므라’의 첨가와 맞물려 있다.

## 4. 번역 기법

지금까지 히브리 본문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타르굼의 용어들을 살펴보았다면, 이 단락에서 우리는 단지 히브리 본문으로부터 변형된 형태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원문에 대한 해석에 해당하는 번역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타르굼 호세아 1장을 마소라 본문에 견주어 읽을 때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차이는, 먼저(4.1.1.), 히브리 본문에 없는 표현들이 첨가 및 반복되어 나타나고(메므라, 돌아오라), 둘째(4.1.2.), 원문에 있는 특정한 표현을 삭제하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본문에 대한 번역이라기보다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고멜 관련 본문), 마지막으로(4.1.3.), 히브리 문장의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옮기고 있는 점이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 4.1. 단어, 구문의 첨가 및 반복

#### 4.1.1. ‘메므라’의 첨가

먼저 우리는 타르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을 드러내는 용어인 ‘메므라’가 본문에 등장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동사 “아마르(אמר)”에서 파생한 명사 ‘메므라’는 우리말 ‘말씀’으로 옮길 수 있지만, ‘메므라’가 하나님의 현존 및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으로 옮길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전달할 수 없다. 타르굼 번역자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을 초월한 절대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인동형론적 표현을 극도로 절제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입장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 아닌 야훼의 ‘메므라’라는 사상을 만들어 낸다.<sup>16)</sup> 호

16) 타르굼 웅겔로스 창세기를 따르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의 ‘메므라’이다.

세아 1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야훼의 ‘메므라’ 역시 백성들을 구원하고(7절) 보호하는(9절) 점에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매개한다.

이 용어가 어떻게 타르굼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성부로서의 야훼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의 개별적인 위를 지니고 있는지 등, ‘메므라’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sup>17)</sup> 그러나 ‘메므라’가 타르굼에서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신학적 의미 외에, 이 용어가 신약사상에 끼친 영향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비단 이 단어의 용례를 넘어 타르굼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100여년 이전부터 학자들은 아람어 ‘메므라’가 요한복음의 “로고스(λόγος)” 기독교론에 끼친 영향에 대해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단의 주석가들은 타르굼 웅켈로스에서 ‘야훼의 메므라’가 단순히 야훼의 ‘말씀’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로고스’가 ‘메므라’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으로까지 주장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이론을 반박하는 연구가들은 ‘로고스’ 기독교론을 전형적인 그리스 사상 아래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8)</sup> ‘메므라’와 ‘로고스’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이론들은 이들을 지지하는 독립적인 가설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한 입장이 옳다고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람어가 신약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저 언어로서 아람어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루는 호세아 본문에 나타나는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또다른 예를 통하여 확인된다.<sup>19)</sup>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예를 먼저 들어보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빛(ὄφειλημα)진 자를 탕감(ἀφίημι)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빛도 탕감하여 주시옵고’(『개역개정』 마 6:12 각주)로, 그와 달리 누가는 ‘죄(ἁμαρτία) 지은 모든 사람<sup>20)</sup>을 용서(ἀφίημι)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개역개정』 눅 11:4)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고 전한다. 예수님은 ‘빛의 면

17) 메므라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의미를 위해서는 배철현, “타르굼 아람어 성서 번역의 특징”, 36-38과 이 논문이 소개하는 주요한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다.

18) 이러한 상이한 주장들을 위해서는 다음의 고전적인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C. T. R. Hayward, “The Holy Name of the God of Moses and the Prologue of St. John’s Gospel”, *NTS* 25 (1978-9), 16-32.

19) 소예언서 타르굼의 편집연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소예언서 타르굼에 보존된 전승들이 주후 7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주장으로부터 본문이 주전 2세기에서 주후 2세기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주장 등 다양하다. 참조, E. Bons, “Osée 1,2. Un tour d’horizon de l’interprétation”, 220 각주 45. 물론 후대에 기록된 사실이 전승의 고대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20) 『개역개정』 누가복음 11장 각주에서 ‘헬, 빛진 모든’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그릇된 각주로 보인다. 누가복음 본문은 마태복음과 달리 ὄφειλημα가 아니라 ἁμαρτί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와 '죄의 용서'라고 하는 서로 다른 내용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아람어로 가르치셨을 '빛의 면제'와 '죄의 용서'는 타르굼 호세아 1:3과 6절(2회)에 나오는 동사 ܦܨܘܐ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에 대한 그리스어로의 서로 다른 번역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의 아람어 단어가 서로 다른 그리스어로, 그러나, 예수님이 '빛의 면제' 혹은 '죄의 용서' 혹은 그 둘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기도를 가르치셨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두 단어로 정당하게 번역된 예와 더불어, 그리스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지적한 피츠마이어(J. Fitzmyer)의 제안은 흥미롭다. 그가 제시한 예를 소개하자면, 그리스어로 기록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마 7:6)는 예수님의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개에게 주지 말아야 할 '거룩한 것'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룩한 것'의 그리스어 "토 하기온(τὸ ἅγιον)"에 해당하는 아람어 ܦܨܘܐ의 의미를 반추해보면 우리는 위의 구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ܦܨܘܐ를 이루는 자음명사 qdš를 quḏšā로 읽을 경우, '거룩한 것'을 뜻하게 되지만, 이 자음명사를 다른 방식, 즉 qeḏāšā로 읽을 경우 이는 '반지'를 의미하게 된다. 즉, 만일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qdš를 '케다쉬'로 읽고 그리스어로 바르게 번역했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은 '반지를 개에게 주지 말라'일 것이며, 이는 곧바로 뒤이어 나타나는 '너희 진주(τοὺς μαργαρίτας ὑμῶν)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병행구문과 잘 맞아 떨어진다.<sup>21)</sup>

아람어는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안에서, 마소라 사본의 일부(창 31:47; 렘 10:11; 스 4:8-6:18; 7:12-26; 단 2:4-7:28) 및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어록의 단편 및 바울서신의 일부에 기록되어 있다.<sup>22)</sup> 따라서 정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와 성서 아람어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약의 기저 언어로서 아람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실이 곧바로 당시 신약 시대를 살았던 저자들과 독자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까지 논쟁 중인 문제로 남아 있지만, 예수님 당시 대부분 팔레스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람어를 사용했을 개연성이 가장 높고,<sup>23)</sup> 이에 따라,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21) J. A. Fitzmyer, *A Wandering Aramean. Collected Aramaic Essays*, SBLMS 25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9), 14-15. 아람어로 '반지를 주다'라는 표현은 11QtgJob 38:8에 나타난다.

22) ταλιθα κουμ(막 5:41), ἐφφαθά(막 7:34), κορβάν(막 7:11), ῥάββουνί(막 10:51; 요 20:16), ἄββά(막 14:36; 갈 4:6; 롬 8:15), μαράναθά(고전 16:22) 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마 27:46; 막 15:34)도 시편 22:1의 히브리 본문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의 아람어 음역에 해당한다.

23) J. A. Fitzmyer, "The Languages of Palestine in the First Century AD", *CBQ* 32 (1970),

있는 신약성경을 당시 입말로 사용된 아람어 언어 배경에서 읽는 것은 건강한 성경 해석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타르굼은 비단 히브리 본문에 대한 하나의 번역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구약과 신약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4.1.2. ‘죄’와 ‘회개’의 첨가 및 반복

위의 예에서처럼, 타르굼이 특정한 단어나 구문을 첨가함으로써 자신이 지니고 있던 원문의 표현을 당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옮겼다면, 더 나아가 그는 원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삭제하고, 이를 히브리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내용으로 보충하기도 한다. 호세아 1장에서 이러한 번역 기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고멜 관련 구절이다. ‘고멜’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라지며 그 내용은 ‘죄’의 행함과 ‘회개’에 대한 요청으로 대체된다. 이를 히브리 본문 번역본과 비교하여 보자.

『개역개정』 호 1:2-3, 6

<sup>2</sup>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sup>3</sup>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타르굼 호 1:2-3, 6

<sup>2</sup>호세아에게 임한 야훼 말씀의 시작. 그리고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우상숭배하는 도시의 주민들에게 하여 예언을 예언하라.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민들이 야훼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sup>3</sup>그리고 그는 갔다. 그리고 그들에 관하여 예언했다. “만일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 잎들이 떨어지듯이 그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행했다.

501-531; M. Black, *An Aramaic Approach to the Gospels and Acts* (Oxford: Clarendon Press, 1967<sup>3</sup>). 신약 그리스어에 나타나는 아람어의 영향(Aramaism)에 대해서는 이미 문예부흥 시기부터 많은 인문학자들이 지적하였다. 예수님이 구두로 사용하신 언어가 아람어일 것이라는 본격적인 논의는 A. Meyer, *Jesu Muttersprache: Das galiläische Aramäische in seiner Bedeutung für die Erklärung der Reden Jesu und der Evangelien überhaupt* (Freiburg im B.; Leipzig: Mohr, 1896)가 시작했다. 그러나 복음서의 그리스어에 끼친 히브리어의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참조, J. Joosten, “Aramaic or Hebrew behind the Gospels?”, *Analecta Bruxellensia* 9 (2004), 88-101.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문장부호 필자 첨가)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라 르히민’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더 이상 자비를 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독자들은 타르굼 본문이 히브리 본문에 대한 재창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본문에 나타나는 큰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3절에서 고멜이라는 인물이 사라질 뿐 아니라, 히브리 본문에서와 달리 6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히브리 본문)이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언급되기 때문이다(타르굼).

타르굼 호세아 1장에서 고멜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대치되고, 히브리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회개에 따른 용서가 3절에 첨가되며, 6절에서는 히브리 구문의 부정문이 긍정문으로 뒤바뀐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지적은 1장 전체에서 4차례에 걸쳐 반복된다(2, 3, 6, 8절). 이는 고멜의 이야기를 삭제하면서 그 부분을 ‘백성의 죄’, ‘회개의 요청’, ‘죄의 용서’의 내용으로 채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랜 구전 역사를 지니고 있는 타르굼이 어느 특정한 시기에 어느 한 개인이 이러한 번역을 시도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번역자가 특정한 구절들을 삭제하고 첨가하며 반복한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이유와 의도로 번역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문을 이처럼 변화시켰는가?

## 4.2. 신학적 해석으로서의 번역

### 4.2.1. 고멜과 이스라엘

히브리 성경 호세아서에서 예언자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은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을 형성한다. 우리는 타르굼 번역자가 어떤 의도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내용으로 채우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번역이 통용되고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당시 번역자가 하나님의 종이 창녀<sup>24)</sup>와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

24) ‘창녀’로서 고멜의 인물에 관한 문제는 본 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를 금하는 할라카와 전적으로 모순된다(*Sotah* 1:1).<sup>25)</sup> 번역자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삭제하는 대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환치한다.<sup>26)</sup> 이는 예언자가 창녀와 결혼하는 충격을 해소하는 동시에, 특정한 한 개인의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일반화하며 현재화하는 적극적인 신학 해석이기도 하다.<sup>27)</sup>

이러한 타르굼의 해석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번역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럴 경우 타르굼 본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러한 ‘현대적’ 질문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과거의’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이미 언급했듯이 ‘타르굼’은 ‘번역’임과 동시에 ‘해석’이라는 점이다. 신학적 해석으로서의 번역을 오늘날의 개념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고대 타르굼 번역자가 가지고 있는 번역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전수 받은 본문에 타르굼이 행한 현재화 작업은 그 고유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둘째로, 이러한 현재화 기능은 마소라 본문의 권위 아래,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즉, 번역 및 해설로서의 타르굼은 결코 그의 번역 대본으로서의 히브리 본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타르굼 번역자는 히브리 성경이 지니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을 영원한 신비로 존중하였고, 그들이 번역한 타르굼 성경은 이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에 대한 주석에 해당했던 것이다.<sup>29)</sup>

#### 4.2.2. 예후 혁명에 대한 종합적, 신학적 해석

25) L. Smolar and M. Aberbach, *Studies in Targum Jonathan to the Prophets*, 43 이하와 E. Levine, *The Aramaic Version of the Bible. Contents and Context*, BZAW 17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150을 참고하라.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선조 유다가 창녀로 가장한 자신의 머느리 다말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충격적이다. 타르굼 웅켈로스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만남의 단락에 ‘다말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첨가함으로써(창 38:15) 유다의 근친상간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26) 참조, K. J. Smelik, “*Targum Jonathan to Hosea 1-3*”, *Irish Biblical Studies* 10 (1988), 37-43.

27) E. Bons, “Osée 1,2. Un tour d’horizon de l’interprétation”, 220-221.

28) 참고, Ph. S. Alexander, “Jewish Aramaic Translations of Hebrew Scriptures”, M. J. Muller, ed., *Mikra. Text, Translatio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CRINT3 (Assen; Philadelphia: Van Gorcum; Fortress Press, 1988), 226 이하.

29) 이러한 점에서 타르굼은 칠십인경과 다르다. 칠십인경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독자적인 성경의 지위를 확보했다면, 타르굼은 언제나 히브리 성경과 더불어 읽어야 했다. 탈무드 등에 명시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에 대해 타르굼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위치에 관해서는 Ph. S. Alexander, “*Targum, Targumim*”, 330을 참고하라.

고멜의 경우에서처럼 신학 전통에 위배되어 보이는 본문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채우는 것과 더불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 내의 진술들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우리는 타르굼 호세아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예후 혁명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히브리 성경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의 혁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개역개정』 호 1:4. 문장부호 필자 첨가)

히브리 성경 호세아서를 따르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예후’가 흘린 피는 정변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예후가 흘린 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와 달리(호 1:4), 열왕기하 9-10장의 진술을 따르면 예후 혁명은 하나님이 인준하신 거룩한 사건으로 나타난다. 예후에게 임한, 여로보암 왕조를 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사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음으로 확증된다. 예후는 바알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왕실을 폐할 뿐 아니라,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 역시 살해하는 야훼 종교의 영웅으로 그려진다. 즉, 열왕기서에서 예후는 자신이 섬긴 왕을 폐한 역도로서가 아니라 쓰러져가는 야훼 종교를 부활시킨 종교 혁명가로 묘사되고 있다.

자신이 번역해야 할 본문으로 지니고 있던 호세아서와 더불어, 열왕기 본문의 기록 역시 숙지하고 있었을 타르굼 번역자에게, 호세아서에 나타난 예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열왕기서의 긍정적인 평가에 반하고 있는 사실이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했지만(열왕기), 후에 그와 그 후손 역시 바알을 섬겼다(호세아)는 타르굼의 번역은 상이한 두 해석을 조화시키기 위한 종합적 해석에 해당한다.

타르굼의 독자가 이 부분에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타르굼의 번역 기법이 모순된 두 진술을 조화하려는 시도에서 두 역사해석을 단순히 나열하여 종합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종합의 차원 배후에 깊은 신학적 성찰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결국 후에 바알을 좇은 예후가 살해한 바알 숭배자들의 피가 ‘무고한 피’로 평가되어 있는 점은, 과연 죄인이 또다른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반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학적 질문은 간음한 여인을 벌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요 8:7)을 떠올린다. 예후 혁명의 종합적 평가를 다루고 있는 타르굼 호세아 1장 4절의 아람어 구문의 난해함은 어찌

면 그 신학적 문제의 난해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 4.3. 역번역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번역은 히브리 본문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6절 하반절을 살펴보자.

『개역개정』 호 1:6하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  
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타르굼 호 1:6하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더 이상 자  
비를 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6절의 히브리 본문을 따르면,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딸을 ‘로 루하마’라 지을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르굼 번역자는 용서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회개에 대한 용서의 약속으로 바꾸고 있다.

타르굼에서 이처럼 긍정문을 부정문 혹은 수사의문문으로 바꾸는 기법은 클라인(M. L. Klein)이 오경에 대한 타르굼에 나타나는 많은 예를 들어 소개하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당대 번역자의 신학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30)</sup> 이러한 기법을 타르굼 호세아 1장 본문에 적용할 때 어떠한가? 번역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이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용서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으로 끝나는 히브리 본문 뒤에,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조건 하에(첨가 부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으로 번역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한 사상은 포로기의 비극적 역사를 전해들은 타르굼 번역자에게는 다른 어떤 사상보다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잡았을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역번역은 타르굼의 신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는 비단 6절에 나타나는 문장의 뜻만 바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타르굼 호세아 1장 본문의 전체 구조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30) M. L. Klein, "Converse Translation: A Targumic Technique", *Bib* 57 (1976), 515-537.

## 5. 타르굼 번역 기법에 의한 본문의 구조 및 의미

성경 본문의 구조는 그 본문을 읽는 독자들의 수만큼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어떠한 본문의 구조를 제안할 때, 이는 그가 본문을 이해하는 특정한 관점에 의한 결과라는 가정을 전제한다. 필자가 아래에서 제안하는 타르굼 호세아 1장의 구조 역시 본문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방식 중 단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타르굼 번역자가 히브리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새롭게 첨가된 구절들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표제 (1절)

A1. 이스라엘 백성의 죄(2절)

B1. 돌아옴에 따르는 용서(3절 상)

A1. 이스라엘 백성의 죄(3절 하)

C1. 바알로 돌아감: 바알의 백성(4-5절)

A2. 이스라엘 백성의 죄(6절 상)

B2. 돌아옴에 따르는 용서(6하-7절)

A2. 이스라엘 백성의 죄(8절)

C2. 라 암미: 야훼의 백성이 아님(9절)

우리는 타르굼 호세아 1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교차대구(A1B1A1-A2B2A2)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가 두 번 반복되는(C1-C2)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교차대구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용서를 베푸신다(B1, B2)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하여 죄를 짓는(A1-A1, A2-A2) 사실 사이에 위치시킴으로써, 타르굼 번역자는 불충실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그러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알에게 돌아가며(C1),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라 암미(לְאֱמִי אֵלֵינוּ)”, 즉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신다(C2).

흥미롭게도, 반복되는 교차대구(ABA)에 이은 평행구조(C1-C2)는 C2만 제외하고 타르굼 번역자에 의해 새롭게 첨가된 부분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이러한 구조는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들의 기능에 의한 것으로, 타르굼을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는 청중들과 이를 본문으로 읽고 연구하는 독자들은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했다’(A1, A2)라는 범죄에 대한 지적과 ‘돌아오면 용서받을 것이다’(B1, B2)라는 용서에 대한 약속이라는 이중 구조 가운데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번역자는 ‘돌아가감’이라는 단어의 대상을 야훼와 바알의 송아지에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청중 및 독자들로 하여금 조상들과 자신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죄를 떠올리게 한다.

## 6. 결론

우리는 히브리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 및 구문을 새롭게 첨가하고 반복하며, 원문에 있는 특정한 본문을 삭제하고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학 사상에 따라 원문을 반대로 옮긴 타르굼의 번역 기법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성경 번역의 원칙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번역은 원문을 존중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타르굼 번역 기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번역자는 상반되는 신학적 진술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히브리 본문의 구조를 자신이 첨가한 표현들에 의해 새롭게 드러낸 점 등에서, 우리는 타르굼 본문이 불성실한 번역자가 행한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신학적 성찰과 고뇌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번역자는 비단 과거의 언어로 기록된 본문을 오늘의 언어로 옮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수받은 거룩한 말씀의 빛에서 자신이 당면한 사회와 역사와 신학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비단 전승사적 의미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전수된 구전 전승의 기록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기록되는 과정 및 기록 이후에도 문자화된 의미는 계속되는 구두 전승과 선포를 통하여 끊임없이 연구되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의 담지자들은 말씀이 문자로 고착화될 때의 위험을 언제나 경고하고 있다(렘 8:7-9; 고후 3:6 등). 기록 이전의 구두 전승과 전승의 문자화, 또한 그 이후 계속되는 구두 전승을 거친 해석은, 문자화된 언어와 그 이후 계속되는 구두로 전승된 언어 사이의 끊임없는 변증법적 긴장을 반영한다. 문서화된 성경의 생명력은 바로 이처럼 시대를 통해 계속되는 긴장 관계에서의 선포와 해석에 의해 유지된다. 달리 말하면, 이는 해석자와 선포자가 기록된 문자에 대해 행하는 끊임없는 현재화 작업에 의해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의 예로 살펴본 타르굼 호세아 1장은 바로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역동적 만남을 훌륭하게 보여주며, 성경 독자들을 끊임없이 계속될 성경 해석을 위한 모험에 초대한다.

<주요어>(Keywords)

타르굼, 호세아 1장, 번역, 해석, 구두 전승, 문서화

Targum, Hosea 1, Translation, Interpretation, Oral tradition, Textualization

(투고 일자: 2010년 1월 11일, 심사 일자: 2010년 3월 15일, 게재 확정 일자: 2010년 3월 23일)

<참고문헌>(References)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배철현, “타르굼 아람어 성서 번역의 특징”, 『성경원문연구』 18 (2006), 24-42.

배철현, “에스라기 아람어 본문에 나타난 고대 페르시아어 기저 영향 - 에스라기 4장 7하반절의 번역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19 (2006), 29-46.

Alexander, Ph. S., “Jewish Aramaic Translations of Hebrew Scriptures”, M. J. Muller, ed., *Mikra. Text, Translatio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CRINT 3, Assen; Philadelphia: Van Gorcum; Fortress Press, 1988, 217-253.

Alexander, Ph. S., “Targum, Targumim”, ABD 6, 320-331.

Black, M., *An Aramaic Approach to the Gospels and Acts*, Oxford: Clarendon Press, 1967<sup>3</sup>.

Bons, E., “Osée 1,2. Un tour d’horizon de l’interprétation”, *RSR* 73 (1999), 207-222.

Cathcart, K. J. and Gordon, R. P., *The Targum of the Minor Prophets: Translated, with a Critical Introduction, Apparatus, and Notes*, The Aramaic Bible 14, Edinburgh: T. & T. Clark Ltd., 1989.

Eskhult, M., “The Importance of Loanwords for Dating Biblical Hebrew Texts”, I. Young ed.,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JSOTS 369, London;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3, 8-23.

Fitzmyer, J. A., “The Languages of Palestine in the First Century AD”, *CBQ* 32 (1970), 501-531.

Fitzmyer, J. A., *A Wandering Aramean. Collected Aramaic Essays*, SBLMS 25,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9.

Hayward, C. T. R., “The Holy Name of the God of Moses and the Prologue of

- St. John's Gospel", *NTS* 25 (1978-9), 16-32.
- Heschel, A. J., *The Prophets*, New York: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62.
- Jastrow, M.,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New York: The Judaica Press, 1996.
- Joosten, J., "Aramaic or Hebrew behind the Gospels?" *Analecta Bruxellensia* 9 (2004), 88-101.
- Joosten, J., "L'agir humain devant Dieu", *RB* 113 (2006), 5-17.
- Kaufman, S. A., "Languages(Aramaic)", *ABD* 4, 173-178.
- Klein, M. L., "Converse Translation: A Targumic Technique", *Bib* 57 (1976), 515-537.
- Levine, E., *The Aramaic Version of the Bible. Contents and Context*, BZAW 17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 Meyer, A., *Jesu Muttersprache: Das galiläische Aramäische in seiner Bedeutung für die Erklärung der Reden Jesu und der Evangelien überhaupt*, Freiburg im B.; Leipzig: Mohr, 1896.
- Rosenthal, F., 『성경 아랍어 문법』, 안영복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Schniedewind, W. M., *How the Bible Became a Book: The Textualization of Ancient Israe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Smelik, K. J., "Targum Jonathan to Hosea 1-3", *Irish Biblical Studies* 10 (1988), 37-43.
- Smolar, L. and Aberbach, M., *Studies in Targum Jonathan to the Prophets*, New York; Baltimore: Ktav; Baltimore Hebrew College, 1983.
- Sperber, A., *The Bible in Aramaic, Vol. II: The former Prophets according to Targum Jonathan*, Leiden: Brill, 1959.
- Tassin, C., "Targum", *Supplément au Dictionnaire de la Bible* 13, 2-343.
- Wünsche, A., *Der Prophet Hosea übersetzt und erklärt mit Benutzung der Targumim, der jüdischen Ausleger Rachi, Aben Ezra und David Kimchi*, Leipzig: Weigel, 1868.

<Abstract>

### **The Translation Technique in Targum Hosea 1**

Dr. Sun-Jong Kim  
(University of Strasbourg)

Translation does not mean a simple rendering of words into another language. It is to meet with other cultures and times. In this respect, Targum is a path which leads the biblical readers to the ancient Hebrew text and offers a good model to translate and interpret difficult phrases in the Hebrew Bible. In addition to these functions in the domain of the Old Testament studies, the Aramaic Bible is also important for the New Testament studies in that the Aramaic language is a substratum of the New Testament Greek.

In this essay, we try to trace the translation technique in Targum Hosea 1. The targumist not only interprets theologically the Hebrew phrases in adding and repeating certain words or expressions, but also translates certain phrases conversely. The comparison of the Targum text with the Hebrew text leads us to conclude that Targum is an interpretation as well as a translation. The targumist does not merely translate the Hebrew text according to his translation principles but recreates an original text in the light of his theology. This translation process produces a new textual structure and an original theological message that we cannot find in his source text. The reader needs to understand this translation technique in the tension between the written text and the oral tradition after the textualization of the Hebrew Bible.